

○ 굴묵밭할마님 본

동북(東福)에 부락(部落)이 었일 때, 동북의 와서 굴묵밭¹⁾디 살면서 밋을을 설촌(設村)하고 아이덜 녀²⁾도 들이멍 살다죽엇는다. 죽으멍 말씀하되

『내 죽거들랑³⁾남녀구별(男女區別)을 몰라 죽엄시니⁴⁾ 신당(神堂)으로 위하라. 그레민 인간번성(人間繁盛) 육축번성(六畜繁盛) 오곡풍등(오곡풍등) 만물번성 시켜주마.』

허여 위하는 신당(神堂)입네다.

○ 송씨하르바님 본

송두 송악산(松都松嶽山) 좌우청기(左右天機)를 집떠보니⁵⁾ 제주 남방국(濟州南方國)동문밖(東門外)⁶⁾ 동북리(東福里) 좌정(坐定)해야 그 부락(部落) 인명(人命)을 축할 일⁷⁾과 제 명(命)이 부족하 일, 인간덜을 도와여⁸⁾ 주어서 우마번성(牛馬繁盛)과 육축번성(六畜繁盛) 시길 만하다.

송두 송악산(松嶽山)서 내려오는다, 올 적인 낭낭선⁹⁾ 패도목¹⁰⁾ 상예화단¹¹⁾ 소반선¹²⁾ 둘러타아 지고¹³⁾ 제주 남방국(濟州南方國)을 상(向)해서 들어 올 때, 제주 물믈루¹⁴⁾를 근당(近當)하니, 굴묵밭할마니가 죽은 혼신(魂神)으로 나사서 밤의는 신불(神火)이요, 낮이는 연불(煙火)이요. 동북(冬服里)큰 갯맛¹⁵⁾드로 드러대니,

『어서 잘 왔다. 올디를¹⁶⁾ 불써 지들렸노라. 자기(自己)가 여기 와진 원인을 알겠느냐?』

『오긴 와도 나는 모르것읍네다.』

『내가 이 부락을 직하다가¹⁷⁾ 죽어 저승 황천(黃泉)을 들어 가니 「너는 이승서 뭇 죄(罪)를 허였느냐?」채판관(崔判官)이 문세(文書) 들러 형벌(刑罰)을 논(論) 할 때, 날 「동북리란 밋을을 설비(設備)허였고 인간덜을 무스태패(無事太平)로 다 기네겠도록¹⁸⁾ 허였고 농스농업(農事農業) 짓는 법을 베와 줬고 상단꺈(上丹骨)¹⁹⁾ 중단꺈 하단꺈 여레듭(十八) 아이노새²⁰⁾ 수완단꺈²¹⁾ 인명(人命)옥하고 제 명(命) 부족한 일을 막아 줘서 해서 상정월(正月)들 돌아오민 부락에 천제국젯법(天

1) 동북(東福里)의 지명.

2) 녀.

3) 죽거든.

4) 죽고 있으니.

5) 짚어 떠보니.

6) 제주성의 동문 밖.

7) 축원(祝願)할 일.

8) 도와(助).

9) 낙남선(落南船)

10) 배를 만든 재목의 이름인 듯.

11) 상여(喪輿).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 배의 지붕의 꾸밈을 표현한 것인듯.

12) 소범선(小帆船)

13) 둘러타가지고.

14) 수평선

15) 동북리(東福里)의 포명(浦名). 큰개말로. 「-맛-」은 머리말의 말.

16) 올 데를. 오기를.

17) 지키다가.

18) 지내도록. 「-겠-」은 미래보조어간.

19) 신당집단민(信仰集團民)

20) 단골 중의 아이단골.

21) 수한단골의 잘못. 수많은 단골.

帝國祭法)을 하여 옥황상제(玉皇上帝)에 지인등수²²⁾를 들었고, 만수무강 소원성취(所願成就)를 시켜 줘서 해서 정승 염내대왕(閻羅大王)에 축원(祝願)을 드렸고, 백설(百歲)이 당하니 저승 염내왕이 불러, 왕의 손(王孫)이라도 이 내 목심(命) 흐수엇이 죽어지니, 저의 죄(罪)는 이런 죄 뱃기 엇습네다.』영²³⁾ 채판관(崔判官)안티 말허였노라. 경흐난²⁴⁾채판관(崔判官)이 말을 흐뵈 「그레민 조기 의²⁵⁾원명(元命)이 메기란²⁶⁾ 죽어졌쟁²⁷⁾ 흐고 자기 (自己)가 데납 옷이²⁸⁾ 죽은 것이 죄가 아니냐, 흘 때, 그럴 때 죽어 혼신(魂身)으로 곰곰이 생각하니, 내 데납(代納)을 정허여사²⁹⁾ 홀로고나³⁰⁾ 생각허여 앓아 천리(千里)를 보고 사³¹⁾ 만리(萬里)를 뱃던 것이다. 유왕황제국(龍王皇帝國)으로 꿈에 선몽(現夢)을 시겨서 이 낭낭선포도목을 타아지고 이디를³²⁾ 오게시리³³⁾ 흐 것이다.』

『고맙습네다.』

그 말 떨어지자 할마님은 인무불견(人無不見)이라,

『아하, 이 어른이 나를 이꺾지 오겟투루기³⁴⁾ 허였구나.』

송씨 하르바님이 그 할마님 지시(指示)를 받아가지고 마은여듭 (四十八) 상단결(上丹骨)을 다 오겟투루기 하여 그런 말을 모두 일르니, 마은요듭 상단결에서 느 나 옷이³⁵⁾인민덜을 모아, 인민덜이 말을 하뵈,

『그 할마님 골은 말이³⁶⁾ 옳은 말이우다. 우리 ㅁ을을 그 할마님 골은대로 전부 다 지켜 주십서.』

『그러거들랑 나 곤는 대로³⁷⁾ 당신네도 지켜 주십서.』

『염네(念慮) 마십서.』

『있는 단결칩(丹骨家)이랑 석 둘에 한번도 좋고 없는 단골칩이랑 여섯들(六個月)에 한번이 좋수다. 굴뚝밧할마님 나시랑³⁸⁾ 초일뤼(初七日), 정성(精誠)이 부족흐거들랑 열일뤼(十七日) 가곡, 열일뤼 정성이 부족흐거들랑 수무일뤼(二十七日)에 가십서. 있는 집이랑³⁹⁾ 일년에 식번(三回), 없는 집이랑그네 일년에 두 번.』

이런 상의(相議)를 하니, 있는 이 다 좋댄⁴⁰⁾ 말을 흐는다, 박칩(朴氏宅)이 흐 단결이 나서서 말 흐뵈

『있다곤 해서 식번(三回)을 가곡 엇다곤 해서 두 번을 갈 게 아니고, 둘둘마다 성의가 싹거들랑⁴¹⁾ 가는 게 좋수다.』

만민이 다 흐기로 통일이 뵈데다.

22) 죄인등소(罪人等訴)

23) 이렇게.

24) 그리하니.

25) 자기의.

26) 그만이어서. 끝이어서.

27) 죽어졌다고.

28) 데납(代納) 없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 없이」의 뜻.

29) 정해야.

30) 하겠구나.

31) 서서(立).

32) 여기들.

33) 오도록.

34) 오도록. 오겟도록. 「오게시리」와 같은 뜻.

35) 너나없이. 모두의 뜻.

36) 말한 말이.

37) 말하는 대로.

38) 뭇일랑.

39) 집일랑.

40) 좋다고.

41) 있거든.

상단궐(上丹骨)에서 제초(再次) 말씀을 하기를

『우린 제주 와서 Ep 묻은 땅이 뉘고 하르바님은 이제사 바쁘서⁴²⁾ 초행(初行)으로 오시고 하니 뉘신⁴³⁾ 음식을 자시는 중 알지도 못하고 어떤 자리에 누웠 자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니 이것을 알려 주십서.』

『할마님은 뉘신 음식(飮食)을 잡수와났느냐?』

『싱가지제물⁴⁴⁾로 보리쌀(米)에 큰쌀(白米) 색긴⁴⁵⁾ 것도 조와이 하고⁴⁶⁾, 서숙쌀(粟米)에 큰 쌀 색긴 건 조와이 아니 흡데다.』

『찬은 뉘신 찬을 잡수와났느냐?』

문을의를 하니, 단궐에서 말하기를

『육물(六物)에 데헌 건 일째(一切) 안 잡수와읍네다. 해물(海物)로 데헌 음식(飮食)도 해초(海草)라 하니 채수⁴⁷⁾를 문들아서⁴⁸⁾ 잡수고 헤어(海魚)라 하니 구워서뻐기 안 잡수와읍네다. 떡으로 말 하니 「조손(子孫)덜이 부납하게시리⁴⁹⁾ 기영홀게 웃다.⁵⁰⁾ 자꾸 친다⁵¹⁾ 댜다 홀 것 웃이 일년에 한 번 돌레떡이나 헤어달라」 하고 쓸문⁵²⁾ 계란이나 좋아했읍네다. 술도 아이 잡수고 감주(甘酒)뻐기 안 잡수와읍네다.』

그 말 끝데는

『그레민 나도 할마님과 궤 음식(飮食)을 먹는데, 뉘따른⁵³⁾ 음식이 한가지 있노라. 소주(燒酒)를 난 좋아하노라. 기영하고⁵⁴⁾ 그 할마님 산 껍의 그영신내⁵⁵⁾는 누게가⁵⁶⁾ 했느냐?』

『첼씨(崔氏)하르바님이 했읍네다.』

『그 하르바님이 지금 살았느냐?』

『이디 앓아 있읍네다.』

홀목⁵⁷⁾을 비여잡아서⁵⁸⁾ 그 영신내도 울고 하르바님도 울었고나.

본도지관(本土地官)님이 말씀하뉘, 첼씨(崔氏)하르바님보고

『푼채(佛陀) 없는 절(寺)을 직하젠⁵⁹⁾ 한 게 얼마나 울며 얼마나 간장을 색였느냐?⁶⁰⁾ 그 할마님 돌아간 뒤으로는 뉘 했느냐?』

『내리 일렛날⁶¹⁾이 당하니 어느 주당(住堂)의서 아이가 궤로웁직하니⁶²⁾ 집의 왕 ⁶³⁾ 빌어 가라.

42) 육지에서. 도외(島外)에서.

43) 무슨.

44) 자기 집에 있는 제물이란 뜻.

45) 섞은

46) 좋아하고

47) 채소.

48) 만들어서.

49) 분주하게. 분주하도록.

50) 그러할 것이 없다.

51) 친다.

52) 삶은.

53) 별다른.

54) 그러고.

55) 모시던 신하 곧 메인 심방의 뜻.

56) 누가

57) 팔목

58) 덥석 잡아서.

59) 지키려고. 지키자고.

60) 색였느냐.

61) 이렛날.

62) 괴로웁직하니. 곧 앓을 듯하니.

64) 영⁶⁴호민⁶⁵ 신⁶⁵복름을 해 온겁네다.』

『선몽(現夢)을 호느냐?』

『들들마다 식번(三番)은 흡네다.』

『그레면 나가 온댄⁶⁶ 소식을 할마님에게 못들었느냐?』

『울지말앙 살암시민⁶⁷ 너의 으지(依支)가 실 테니⁶⁸ 일년만 종스(從事)헤염거라⁶⁹ 그런 예 뱃
기 없읍네다.』

『그렐 것이다. 그레면 내 그 할마님 대신(代身) 데납(代納)으로 들어살 테니, 언제던지 그 할마
님 살 때 일처록⁷⁰ 내 신

복름을헤여도라.⁷¹너의 먹을 식량은 보리양미가 둘민⁷²너의 처(妻)를 내여 노민 ⁷³호흡(一合)
줄 디 두흡도 줄 것이다. 서숙용시 ⁷⁴가 익을 동안은 구명도식(救命圖食)을 홀 것이다. 또 서숙
용시가 부락에 들어오민 내 첫째 방법을 호겠는디...』

본토지관(本土地官)이 부락민안티 말씀을 호뎌(一升)도 좋고 두뎌도 조니⁷⁵ 아저다 ⁷⁶주는 펜
이 어떻습네까?』

만민백성(萬民百性)이 전부 다 동의를 흡네다.

상단궐에서 말씀하기를

『누워 주무실 디는 어떤 디를 텍호네까?』

『나는 인간처(人間處) 사는 디 호고는 띠와야⁷⁷된다 .멀리 땃지 ⁷⁸말고 팽즈낭⁷⁹그늘이 질⁸⁰
좋다. 팽즈낭 밑으로향. 제주에 완 보니 독(石)이 좋구나. 천년(千年)을 놔도 안 부서지고 만년을
놔도 안 부서질 테니 독(石)으로 석상(石床)을 멘들아 도라. 』

『그리고 본도지관님이 상(床)은 언제 받것습네까?』

『우선 나를 첫째암⁸¹위호지 말고 부락에서 상정(上丁)이 돌아오건 천제국젯법(天帝國祭法)을
마련하라.첫택일(初擇日)로 받아서 허여도라. 그 전에랑 집의서 소소(小小)호 벨롱갱이 ⁸²고 뭐고
절대 위호지 말아라. 천제국제(天帝國祭)를 위하여 난 즉시(即時) 그날 아척(朝)이랑 할마님호곡
우리를 위하여 도라. 잘 출려 ⁸³ 오고 못출려 오는 건 우리가 성의로 아니 받겠다. 본레(本來)
할마님 조손이 뎌었고 지금으로는 내 조선이 뎌었고, 출리쟁 ⁸⁴호민 엇는 조손에 곤란(困難)이

63) 와서

64) 빌(祝願)어 가거라.

65) 이리 하면.

66) 온다는.

67) 살고 있으면.

68) 있을 터이니.

69) 하고 있거라.

70) 일처럼.

71) 해 달라.

72) 보리 양미(糴米)맥수(麥收)를 해들이면의 뜻

73) 놓으면

74) 조농사

75) 좋으니

76) 가져다

77) 띄워야.떨어져야.

78) 띄우지. 떨어지지

79) 팽나무

80) 제일

81) 첫째음.제일 처음의 뜻.

82) 철갈이와 같음 각 집안에서 하는 신년 진경무제(進慶巫祭).

83) 차려.

아니냐. 떨어진 조손 옷이 ⁸⁵⁾과세열명(過歲列名)⁸⁶⁾이나 하는 게 좋다.』

그 말 곳덴 ⁸⁷⁾상훼(鄉會)가 해산이 되고 철헌(崔氏)그 영신네하고 본도지관님이 홀목을 잡아서 나가자곤 홀 짝에 그영신 내보고

『어디가 좌정 홀 만하냐?』

『물동산⁸⁸⁾조은 디 있읍네다. 천년 폭낭⁸⁹⁾만년 폭낭이 좋습네다.』

『가아 보자.』

간 하르바님이 돌아보더니마는 삼백년(三百年)이 나사 이 부락은 삼백호(三百戶)가 될 듯 말 듯 하구나. 우자용(右左龍)이 잘못 알았구나.철헌(崔氏)그영신내야, 오늘 느하고⁹⁰⁾나하고 마주막 말 이어. 오늘로부턴 느가⁹¹⁾나를 못볼 거, 나가늘⁹²⁾못볼 거여. 이 믯을에 전책임(全責任) 가진 컷동장⁹³⁾을 불르라. 귀참지⁹⁴⁾를 불르라.조녀⁹⁵⁾ 이뜸⁹⁶⁾을 불르라. 구상장⁹⁷⁾을 불르라. 영상장⁹⁸⁾을 불루라.』

『예..저가 갔다 오겼읍네다.』

전무 다 그시간에 모이니 본도지관이 말씀을 하는디

『내 이디 좌정(左定)을 홀 테니 삼일 동안 손을 걸쳐서 월성⁹⁹⁾을 둘러 도라, 이 폭낭 앞으로랑 돌로 석상(石床)을 무어 도라.¹⁰⁰⁾나가 앓아 천리.사¹⁰¹⁾만리를 보는데, 하들 육장¹⁰²⁾부락을 돌아보 명 곳인 일이 시민¹⁰³⁾옥황상제(玉皇上帝) 저싱염내대왕(閻羅大王)신들로¹⁰⁴⁾바당(海) 곳은 일이 시민 유황황제국(龍王皇常國)을 이디나 저디나¹⁰⁵⁾갔다 왔다 하는 것이 만민 인간 눈에도 안 벨¹⁰⁶⁾ 것이요, 눈으로 안 벤댕¹⁰⁷⁾엇댕¹⁰⁸⁾하지 말앙 나곤는 대로¹⁰⁹⁾지정케¹¹⁰⁾잘 허여 도라.』

신의성방(神房)보고 곤는 말이

『느가¹¹¹⁾선설이¹¹²⁾이른(七十)만 뉘거들랑 당하직(堂下直)을 하라.』

84) 차리려고. 차리자고

85) 없이

86) 신년당굿

87) 끝에는

88) 동북리(東福里)의 지명

89) 팽나무

90) 너하고

91) 네가

92) 너를

93) 동장(洞將)부락의 사환을 감독 통솔하는 사람.「컷」은 구(舊)?

94) 「초지」가 아닌가? 「초지」는 연락역을 맡은 사람.

95) 존위(尊位)

96) 으뜸

97) 구향장(舊鄉張)에 맞춘 조운구인 듯.

98) 미상. 구향장(舊鄉長)에 맞춘 조운구이 듯

99) 울성 곧 울타리 담장.

100) 만들어 달라의 뜻.

101) 서서(立)

102) 계속하여 쉬지않고

103) 있으면

104) -한테로

105) 여기나 저기나.

106) 보일

107) 보인다고

108) 없다고

109) 내 말하는대로

110) 지중(至重)하게.

111) 네가

112) 연령(年令)이.

신입신자(新入信者)보고 하는 말이

『너도 죽영 가민 섭섭지 아녀나?¹¹³⁾제일(第日)홀 때마다 잔(盞)이나 혼잔 드리라. 멧천년(歲千年)이나 멧만년이나 이 일은 거절치 말앙 하라.¹¹⁴⁾ 어느 신자(信者)가 들어와서 이 당을 메어서¹¹⁵⁾ 멧해(歲年)심보하고 혼 것을 기억(記憶)허영 언제던지 낳당¹¹⁶⁾후생(後生)하는 신자의게 전해 주라. 그렐 것 ㄱ뜨며는 그 신자덜토 죽어서도 물은 안 굶을 거여.¹¹⁷⁾오늘부터 느하고 나혼곤 ㄱ찌 ¹¹⁸⁾눈에 안보게 뒤편저. ¹¹⁹⁾궂인 일이 시나¹²⁰⁾좋은 일이 시나 할마님광 ㄱ찌 내 선몽(現夢)을 드러주마』

하르바님은, 그때 혼 눈을 트고 ¹²¹⁾보니,강간 무례¹²²⁾뒹옴데다. 그로부터 부락민이 변치 않고 위하는 당입네다.

○ 당 메어온 신내

첼씨하르바님(崔氏組)-이씨할마님-정동지(鄭同知)-박씨할마님-이씨할마님-고씨아바님-홍씨어머님-박인주(朴仁珠)

- 朝天面 北村里 男坐 朴仁珠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27-635.

113) 아니하나

114) 말아서 해라.

115) 당(堂)메다=심방이 당에 전속되어 무제 집행을 전담하고 당을 지키다

116) 놓았다가

117) 물을 안 굶는다는 말은 죽은 후 제사를 받아 잘 먹지는 못하지만 굶지는 아니한다는 말.

118) 같이

119) 되었다.

120) 있으나

121) 뜨고

122) 순식간에 산데온데 없이 아니보임.